



“가르침 실천 안으면 불자 아니다”

■ 응답자유형
전체 응답자 1,402명 중 50대가 34.3%(481명)로 가장 많았고, 40대 33.7%(472명), 60대 이후 24.3%(341명) 순이었다. 30대는 6.4%(89명), 20대는 0.8%(11명)였다. 이처럼 응답자 층이 40대 이상에 몰려있는 이유는 젊은 불자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남(46.6%) 여(51.8%) 비율은 비슷했으며, 자발적으로 불교에 입문한 불자는 전체의 53.5%로 가장 많았다.

우리는 선우·본지 재가불자 의식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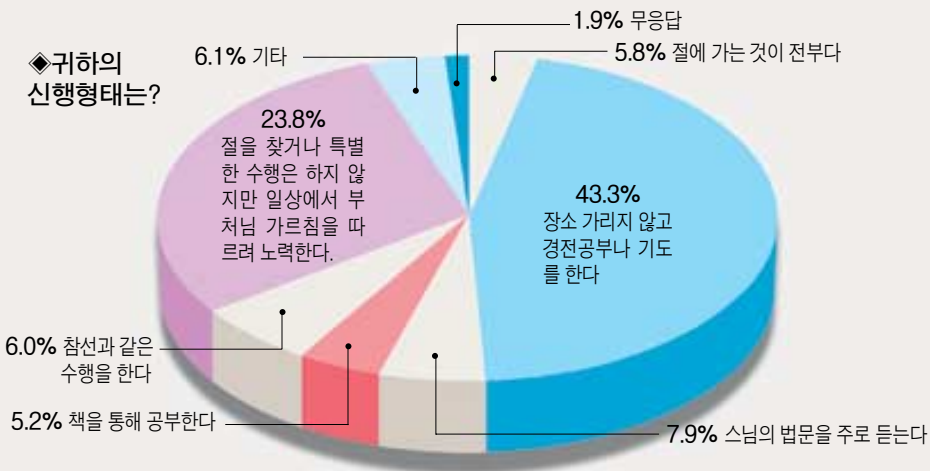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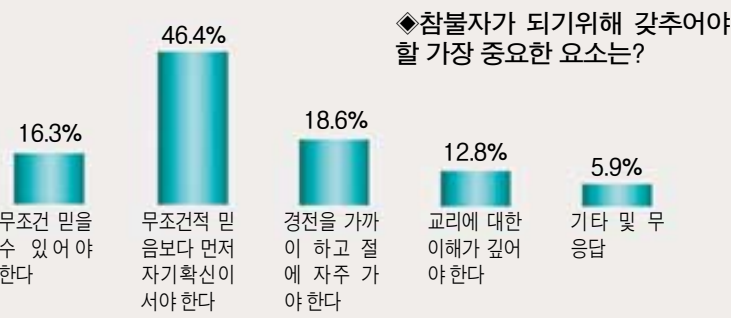
불자들은 어떤 동기로 불교에 입문해서, 어떻게 수행하고 있으며, '불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현대불교〉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우리는 선우>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재가불자의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본지 구독자 중 재가불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을 통해 이뤄졌다. 본 설문 결과는 '본지 구독자'라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일반 불자들의 보편적 의식의 결과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비교적 신심이 돈독한 다수 불자들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설문내용 유형별로 분석을 시도했다.

도의 차이는 있으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조금 부족하다'는 39.8%, '상당히 부족하다'는 30.7%,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26.5%였다.

불자들은 또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이해는 물론 '실천'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60%가 '불자로서 가장 부족한 부분'으로 '실천'을 꼽았고, '교리나 경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응답은 19.8%였다. '신심 부족'은 12%. 이는 수행이나 불교공부도 중요하지만 그 가르침을 직접 행하는 실천행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실천을 중요시하는 불자들의 태도는 교리에 대한 인식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교리를 알아야만 참불자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47.6%)는 견해가 '교리를 아는 것은 필수적이다'(45.1%)는 견해를 앞섰다. '교리를 모르더라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5%였다. 이는 과거 '교리'를 중요시 여겼던 수행패턴이 이제 '실천'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 실행행태
'참된 불자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7%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한다'고 답했으며, '그렇다'는 22.8%, '그렇지 않다'는 7.1%였다. 이 결과는 불자 10명 중 7명이 불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는 대답이 '그렇지 않다'는 대답보다 3배 가량 많았다.

스스로가 참된 불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불자들의 절반 이상은 그 이유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해서'라고 꼽아 '실천'을 참불자의 척도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불자들의 실천행이 아직도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면, 실천을 참불자의 척도로 꼽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이를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참불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무조건적 믿음보다 먼저 자기확신이 서야 한다'(46.6%)는 대답이 가장 많았으며, '경전을 가까이하고 절에 자주 가야 한다'(18.6%)와 '무조건 믿을 수 있어야 한다'(16.3%)는 대답이 뒤를 이었다. 이는 과거 맹목적 신앙이 주류를 이뤘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불자들 상당수가 믿음(종교)에 대한 확신을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가 삶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삶의 전부'(33.4%) '의지처'(28.7%) '사고와 행동의 기준'(28.2%) '여가 수단'(3.9%) 순이었다. 적어도 불자 10명 중 6명은 바람직하든 그렇지 않

든 불교신앙을 삶과 일치시키려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불교를 신앙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참된 가치를 찾고 싶어서'(78.5%)라는 대답이 압도적이었다. 또 응답자의 60%는 자신의 신앙행태가 '바람직하다'고 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위 세 항목의 결과는 생활 속의 수행이 자리잡아가면서 기복적 성향이 크게 줄어들고, 이에 따라 불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수행에 대해 자부심을

침이 진리이기 때문'이라고 답함으로써 불자들의 불교에 대한 자부심에는 불행에 대한 확신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교적인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수행(65.1%)이 꼽혔으며, 봉사(22%) 포교(3.4%) 교리공부(3.3%)가 뒤를 이었다. 이는 최근 불자들이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수행열풍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교리공부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아 자칫 불교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수

“참된가치 찾고싶어 믿는다” 78.5%

“불자 자부심” 79%... “금지 못느낀다” 옛말

“윤회 믿는다” 87%...업사상·인과법 받아들여

“불교신뢰 받아” 47.8% “아니다” 47.4%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불교와 삶

자신의 수행에 대한 자부심은 '불자'라는 자부심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자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79%)는 응답은 상당히 높게 나타난 반면, '그렇지 않다'(12%)거나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다'(6.6%)는 대답은 매우 낮았다.

이같은 결과는 '불자들 스스로가 불교에 금지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통념과는 다른 것이다.

불자라는 자부심을 느낀다는 응답자의 86%는 그 이유로 '부처님 가르

■ 불교와 사회

불교의 사회적 신뢰에 대한 불자들의 의견은 정확히 반반으로 갈라졌다. '불교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47.8%, '아니다'는 47.4%였다. 이는 불자들이 불교에 대해

행에만 매달리는 현상도 우려된다.

응답자의 87%가 윤회를 믿는다는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윤회를 믿지 않는다는 답은 12%로 극소수였다. 이는 대부분 불자들이 업사상과 인과법 등의 불교사상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 외에 조상숭배 등 한국인의 전통적 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와 타인의 이익 중 '나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27.5%와 27.9%로 거의 같은 흥미로운 결과도 나왔다. '선택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39.3%로 가장 높았다.

■ 불교 및 교리 이해

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까. 10명 중 7명은 정

갖는 자부심이 높은 것과는 달리 사회(국민)는 불교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견해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사회적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승가자질부족'(32.7%)과 '승가불행화음'(21.1%)이 나란히 1.2위로 꼽혀 승가의 자기반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긍정과 부정의 양립하는 현실인식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불자들은 불교의 미래를 밝게 전망했다. '다른 종교보다 불교의 미래가 밝을 것이다'는 응답이 74.1%인 반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는 응답은 9.6%에 불과했다. '다른 종교와 비슷할 것이다'는 대답은 13.6%였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가족을 부처님처럼...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Hanmaum Seon Center

원장 대행
주지혜원

사부대중 일동

▶ 본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 1동 101-62
전화 : 사무처 (031)470-3100 팩스 (031)470-3116
홈페이지 : http://www.hanmaum.org

◆ 국내지원 ◆

- 광명선원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곡 4구 산 5-2 TEL : 043-877-5000 FAX : 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하동 1500번지 TEL : 064-721-4662 FAX : 064)721-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상동 522-1 TEL : 051-403-7077 FAX : 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5 TEL : 062-373-8801 FAX : 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7 TEL : 052-295-2335 FAX : 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번지 TEL : 053-767-3100 FAX : 053)765-1600
- 중부경남지원 경남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29-1 TEL : 055-345-9900 FAX : 055)346-2179
- 전주지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 : 055-746-8163, 744-1321 FAX : 055)746-7825
- 대전지원 대전광역시 서구 갈매동 344-21 TEL : 042-532-1481 FAX : 042)526-0891
- 포항지원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동동 18-99 TEL : 054-275-3163 FAX : 054)274-3503
- 청주지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동 53-1 TEL : 043-259-5599 FAX : 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포남 2동 1304번지 TEL : 033-651-3003 FAX : 033)652-0281
-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도천동 113-3 TEL : 055-643-0643 FAX : 055)643-0642
-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상동 952-19 TEL : 061-284-1771 FAX : 061)284-1770
- 문경지원 경북 문경시 흥덕동 592 TEL : 054)555-8871 FAX : 054)556-1989

◆ 해외지원 Overseas Branch ◆

- U.S.A (미국 지원)
 - New York (뉴욕클러스터 지원) 144-39.32 Ave. Flushing NY11354, USA TEL : (1-718) 460-2019 / FAX : (1-718) 939-3974
 - Washington D.C. (워싱턴 지원)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 : (1-703) 560-5166 / FAX : (1-703) 560-5566
 - Los Angeles (LA 지원)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 : (1-323) 766-1316 / FAX : (1-323) 766-1916
 - Chicago (시카고 지원)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 : (1-847) 674-0811 / FAX : (1-847) 674-2280
- CANADA (캐나다 토론토 지원)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 : (1-416) 750-7943 / FAX : (1-416) 701-1359
- ARGENTINA (아르헨티나)
 - Buenos Aires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원) Miro 1575, cp(1406) Cap. Fed. Rep. Argentina TEL : (54-11) 4921-9286 / FAX : (54-11) 4921-9286
 - Tucuman (투쿠만 지원)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cp(4107) Tucuman, Rep. Argentina TEL / FAX : (54-381) 425-1400
- GERMANY (독일 지원)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 : (49-0)2131)969551 / FAX : (49-0)2131)969552
- THAILAND (태국 지원) 86-1 soi 4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TEL : (1-662) 391-0091 / FAX : (1-662) 381-8588